

자료제공 : 2024. 7. 9.(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양준모

2133-7817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쪽

광장관리팀장

김형미

2133-7731

서울시, 채상병 1주기 시민분향소 청계광장에 설치 확정...17~19일 운영

-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설치부지 신속하게 검토 후 조형물 ‘스프링’ 앞 2개동 설치 합의
- 오 시장 부지 확보 지시 후 즉각적인 논의 시작... 1주기(7.19.) 앞둔 17일~19일 운영
- 시, “시민분향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것”

-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신속하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채 상병 1주기’ 분향소를 청계광장 조형물 스프링(소라탑) 앞에 총 2개동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8일(월)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신속하게 분향소 부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9일 오후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 등과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설치 장소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채상병 1주기인 19일을 앞두고 오는 17일~19일 설치되는 시민분향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